

2011년 경영목표달성 전략 워크샵



2011년 우리는 Actual한 가치활동에 주력하여,
경영목표 달성과 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SUNBO World Best SUNBO Family 2010. 12. 4

12월 4일 대표이사, 상임고문, 부사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원, 팀장급 이상 관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협력관에서 '2011년 경영목표달성 전략 워크샵'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2011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의식 제고, △위기극복을 위한 전사일체감 형성,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리더의 자발적 몰입 유도를 목적으로 부문별로 올해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이날 최금식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선보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이뤄왔으나 아직도 변화와 도전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변화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서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실천하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각 부문의 사업계획 발표 후 장명우

상임고문은 강평을 통해 "사업계획의 주인은 조직의 장이며 핵심은 목표와 실천계획이다. 목표(KPI)는 상위 목표 분담정도이고 실천계획은 조직에 대한 작업명령서다. 따라서 리더는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조직원을 설득하고 지원하며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래야만 조직원(Followership)이 수행된 명령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나아가 감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리자의 책임은 목표 달성이고 수단은 명령과 확인하는 일"이라며 리더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워크샵 후에는 맹인 기타리스트 겸 강사로 활동 중인 임인택 강사를 초청해 '1%의 변화가 100%의 삶을 변화시킨다'

라는 주제의 강연을 준비하여 프로의 열정을 재확인하는 자리도 가졌다.



제 28회 부산산업대상(근로복지부문) 수상 사원 복지 앞장서는 가족친화경영의 선보공업

우리 회사의 최금식 대표이사가 제28회 부산산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11월 30일 부산 상의홀에서 열린 제28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에서 근로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산업대상은 부산상공회의소가 제정·시행하고 부산시가 후원하며 지역상공업 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헌신해 온 인사 가운데 매년 후보를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우리 회사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가족친화기업과 출산장려기업으로 뽑힌 데 이어 올해는 최금식 대표이사가 부산산업대상의 근로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가족친화경영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28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관장 150여 명이 참석했고 이장호(썬부산은행장)이 경영대상, 박종안 대한제강(썬상무)가 기술대상, 강오수(썬아이피케이 대표)가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제 1회 우수 조선기자재업체 인증 수여

당사 최금식 대표이사는 2010년 12월 8일 한국조선협회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조합이 공동 주관한 우수 조선기자재업체 인증 수여식에서 제1회 인증업체로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이 인증은 세계 1위 한국 조선업체의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인증을 통해 신뢰제고 및 해외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인증제로 조선소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매년 우수 조선기자재업체를 평가하여 인증서 수여 및 사후관리하는 인증 제도이다.

제정 원년인 2010년은 현대중공업에 비롯한 국내 6개 대표 조선소에서 추천받은 11개 조선기자재업체를 지식경제부 대·중소협력재단, 상생위 실무위원(조선업체), 한국조선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회,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평가단이 구

성하여 남기준수, 품질수준, 경영상태, 보건 안전 환경 수준, 유관기관 협력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격한 평가를 통해 4개사를 선정하였다.

제1회 인증에는 당사 선보공업(주)를 비롯하여 (주)비아이, 하이에어코리아(주), (주)케이티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금번 인증은 우리 선보가족이 몸담고 있는 조선산업의 주역인 국내 대형 조선소와 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인증 첫 해에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 25년간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수 품질의 기자재 생산과 신제품 개발, 남기준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진해온 선보가족의 노력을 우리의 고객들이 인정해 준 것으로 선보가족 모두의 맘의 결실이며 영광이라고 최금식 대표이사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Life 추천여행지

야망대 짬질방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다!

자연을 그대로 품어 안은 듯한 다대포의 야망대 짬질방



하나는 바로 자연동굴식 짬질방이다. 정원을 가로질러 황토길을 가다보면 왼쪽으로 펼쳐진 바다 옆에 동굴 짬질방의 입구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안으로 들어가면 저온, 고온, 소금 세 가지의 황토방으로 되어 있어 취향대로 즐길 수 있다. 정원 앞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낚시도 할 수 있어 야망대 짬질방만의 특별한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또한 짬질방 앞 작은 정원에서 풍경을 내려다보며 바닷바람에 맘을 식힐 때의 시원함은 자연과 하나 되는 즐거움은 물론이며 평일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 보낸다.

대형짬질방에 비하여 그 규모는 작고 특별한 놀이시설은 없지만 자연과 맞닿아 있어 일상의 쫓김에서 잠깐 나와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밤에는 멋진 다대포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 보다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야망대 짬질방은 주말에만 이용 가능하며 버스를 타고 다대 현대아파트 앞에서 하차 후 현대아파트를 가로질러 바다쪽(통일 아시아드 공원)으로 가면 그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차를 가지고 갈 때는 현대아파트를 가로질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통일 아시아드 공원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생긴 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야망대 짬질방은 바다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건물 안에 서만 이동이 가능하던 기존의 짬질방과는 달리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정원을 통해 외부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건물 곳곳이 밖과 연결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노천식 짬질방인 야망대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Life 수상

설계부 이정훈 사원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수상

지난 7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사)부산복지총봉사회가 주최하고, 부산시가 후원하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의 부산시장 표창장 시상식이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회사 설계부 이정훈 사원은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재활의지 고취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자원봉사 등에 선수범함을 인정받아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정훈 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인과 함께 한 달에 2~3번씩 장애인 복지 센터에 가서 지금까지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 소감에서 "처음에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일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센터에 계신 장애인분들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 그 이상으로 지낸다"며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에 대해 조금 더 마음을 열

고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사회를 비추는 조그만 등불이 되고 싶다는 이정훈 사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의 봉사활동을 기대 해 본다.

Inside SUNBO 우수 협력사 탐방

작지만 강한 기업 '건동기업'

건동 기업은 "주인 된 생각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사훈 아래 2005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달려오고 있는 시트 제작 전문업체로 회사를 설립한 때부터 우리 회사와 함께 하며 벌써 6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건동기업은 창업자인 대표이사께서 작고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지금은 전 직원이 불철주야 자업에 임하고 있다.

건동기업은 "납기와 품질 관리를 최우선 시해 최상의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쓴다"며 "그런 면에서 원칙과 품질에서 철저함을 추구하는 선보를 보며 많이 배우고 우리가 나아가갈 방향을 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명절이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해주는 등 힘들 때 선보가 많이 배려해준다"며 감사의 마음도 덧붙였다.

이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점차 경쟁력을 쌓아 대내외적으로 최고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언급한 뒤 "직원

들이 항상 열심히 해주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휴일도 마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하나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건동기업이 앞으로도 선보와 함께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Run SUNBO Run 회사 소식

사내 협력사 간담회



우리 회사는 12월 7일 야성산업을 포함한 9개의 철 의장 협력사 대표를 초청해 점심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사업팀 김정욱 이사의 선보혁신 사례 발표로 시작된 뒤 최금식 대표이사의 향후 운영방향 설명으로 이어졌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협력사의 발전이 없

으면 선보의 발전도 없어 상호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며 "2011년 생산성 20%향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협력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금식 대표이사는 "3개월 물량을 선 배정함으로써 협력사의 매출 안정화 및 작업공정 관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SS 및 TPS 등 도입 시 필요한 교육, 전개 방법, 적용 분야 등에 대한 자문을 협력사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협력사에 대한 지원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 안전, 보건, 환경 등 작업장 개선 및 관리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기성지급을 앞당겨 협력사의 급여일이 선보 급여일과 같은 매월 10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생 일

다대공장

- 울산사무소**
1공장 최순진(12/20), 황지석(12/24), 정지근(12/11), 박이복(12/10), 명철환(12/2), 장철규(12/23)
산울공(12/18), 강한욱(12/27), 김대관(12/28), 최동배(음11/2), 양수경(음11/12), 김기주(음11/14)
- 2공장**
전광우(12/7)
- 3공장**
박재용(음11/2), 이주일(음11/5)
- 순해공업**
한정현(음11/24)
- 광진공업**
현광진(음11/5)
- 영업**
김광문(12/1)

구평공장

- 설계6팀**
나소영(12/3)
- 평창산업**
이창주(12/28), 박정민(12/26)
- 서경플랜트**
정인호(12/14), 조남서(12/15)
- 보성산업**
장정현(12/2), 방종민(12/23), 한종원(12/11), 구성진(12/5), 이현철(12/18)

영도공장

- 선기관리**
성정훈(12/10)
- 고객지원**
최선호(12/27)

영암공장

- 생산부**
김종영(12/3)
- 명성산업**
최남주(12/18)
- 형우산업**
안재상(12/19)

입사기념일

다대공장

- 영업**
문해기(12/3)
- 2공장**
장상권(12/26)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김창영 사원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는 말에 사람 좋게 웃으면서도 내심 당황해 하는 김창영 사원, 늘 새벽같이 출근하며 굶은 일도 마다 않는 그를 칭찬릴레이에서 만나 보았다.

니다. 처음에는 입사를 늦게 한데다 배관 일도 익숙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 매일같이 도면을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루 빨리 일을 익히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창피함을 무릅쓰겠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터라 더 노력해야죠. 선보가 내 마지막 직장이라 항상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합니다.

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일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익혀 누가 봐도 정말 잘 하고 최고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배려해주는 소장님과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고 싶고 새벽잠이 많은데도 저 때문에 일찍 일어나 바빠 움직이는 아내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Q 다음 칭찬릴레이 주인공을 추천한다면?

2공장 생산팀의 전철민 대리를 추천합니다.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다해낼 뿐 아니라 언제나 웃는 얼굴로 다른 동료들에게 에너지도 북돋아줍니다. 저희 회사에 숨어있는 보배라고 생각되어 추천 합니다.

Q 평소 어떤 마음 가짐으로 근무에 임하세요?

선보에서 근무한 지 2년 정도 됐

Q 어떤 선보인으로 남고 싶나요?

임영삼 부장님이 늘 하는 말씀이 '전문가가 돼야 한다'입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저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Run SUNBO Run 안정된 과정의 "틀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